독일 코스펠트 안넨탈 수녀원 에서의 수도서원 경축행사

성주간 수요일, 경축년을 맞이하는 수녀들은 관구장 마리아 파울라 수녀와 함께 축하 다과 모임을 갖고, 우리 공동체를 알게 된 계기와 성소의 길을 걷게 된 이야기를 기쁘게 나누었습니다.

같은 감사의 마음으로, 마리아 티아틸데 수녀는 노틀담 수녀회 공동체에서 보낸 75 년을 기쁨으로 되돌아보았습니다. 마리아 가우덴시아 펠크만 수녀, 마리아 크리스틸데 벨베르크 수녀, 마리아 헤드비히 멘케 수녀, 마리아 베른프리드 샤펠트 수녀, 마리아 마르트루드 베르케마이어 수녀는 50 주년 경축년을 맞이했습니다. 뮨스터 출신의 마리아 헤드비히 나이데커 수녀와 마리아 엘리자베스 지그베르트 수녀는 다이아몬드 경축년을 맞이했습니다.

부활 주간에는 라인 출신의 되커 신부가 기념 피정을 지도했으며, 피정에는 풍성한 찬미와 그림을 통한 영적 묵상이 포함되었습니다.

장엄한 마침 미사에서 되커 신부는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들의 신앙과 삶의 증거에 감사를 표하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좌우명을 제시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뒤돌아보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며, 충실히 위를 향해 나아가자."

세 곳의 식당에서 잔치 분위기의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기념 촬영이 이어졌고, 카페테리아에서 스파클링 와인으로 건배를 했습니다. 주방 직원들은 부족함 없이 풍성한 점심 식사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이날은 기념 기도 예식과 이어진 저녁 식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